

大學教育의 自律性



清州大 總長 金 明 會

I. 大學 自律의 必要性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은 量的인 膨脹을 質的으로 調和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1970年代 초반부터 大學教育의 一大改革을 試圖하여 그 동안 實驗大學의 形態로 1973年度부터 大學의 改革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거의 모든 대학이 實驗大學의인 運營을 해 왔으나, 만족할 만한 實效를 거두지 못한 채로 10年을 經過한 1980年代부터는 大學 自體의 自律性에 의한 運營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要請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원래 現代大學의 母體로 알려지고 있는 中世紀末에 설립된 大學들이 研究의 自由를 바탕으로 運營되었던 것은 주지의 事實이다. 12,3世紀 經에 設立되었던 伊太利 北部의 Bologna 大學, 南部의 Salerno 大學, 프랑스의 Paris 大學 등은 學問과 研究의 自由 밑에 自主的, 自治的, 自律的 立場에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 후 世界 各國에서 雨後竹筍처럼 설립된 大學들도 대학의 自由와 自律權을 傳統으로 이어받아 왔었고 또한 現代의 大學들도 研究, 教育, 奉仕의 大學機能을 大學教育 自由의 理念으로 이어받아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것이 있다. 草創期의 大學들도 그러했지만 자유라고 해서 放漫하고 破壞的이며 無秩序하거나 非道德的인 것까지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眞正한 自由가 행사될 때 自主性이 발휘되고 自治的인 活動이 可能해지며 非理와 干涉의 制約을 排除할 수 있는 것이다.

II. 自律性의 特性

人間의 自由는 원래 自意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을 위시하여 모든 生態系에 있어서는 欲求라고 하는 생존과 생활의 基本機能을 가지고 이 世上에 出現하게 되는데, 이 욕구가 바람직하지 않은 方向으로 행사될 때 過欲이 되고 非行 非理가 되어 社會的 指彈의 대상이 되고 그 程度와 性質에 따라 應分의 制裁와 處罰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욕구가 바람직한 方向으로 행사될 때는 激勵과 應分의 補償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은 出生 당시에는 거의 欲求에 의한 생활을 거둬해 나가는 동안 점점 성장해 가면서 自意대로 行動하게 된다. 이때의 自意的 行動은 選別된 행동이 되지 못하고 內的인 欲求에서 表출되는 自意 行動으로 여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까지를 포함하여 行動化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父母와 幼兒를 둘러싸고

있는 家族에 의해서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育兒 行動이 이루어지므로 바람직한 習慣에 익숙하도록 해 가며 既成 文化 社會生活에 適應하도록 해 가는 한편 때때로 부닥치는 問題場面을 選別하여 行動化해 가게 된다. 人間의 모든 機能이 발달해 감에 따라 言語를 비롯한 知的 學習이 가능하게 되므로 단순한 欲求에서 表出된 自意行動이 점차 선별되고 습관화되고 정착되어 人格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幼兒時代의 교육은 他意的인 父母와 家族에 의해서 指導와 統制가 작용되지만, 兒童期, 青年期를 거치면서 人間의 成熟性이 더욱 完熟되어 가는 過程에서 점차 自意的인 行動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行動은 父母나 家族 기타 成人들의 指導나 統制에서 벗어나 自己의 意思와 行動에 대하여 스스로 自制하고 自律해 가면서 人間으로의 自立的 獨立生活를 해 가게 되는 것이 人間成長의 대략적인 過程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成長 過程에서 自身の 自意行動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 父母나 기타 關係되는 成人의 善導的인 作用에 대하여 順應이나 修正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他意에 의하여 他律的으로 制裁되어 行動을 修正하게 된다.

그와 같은 過程이 人格化되어 가고 나아가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自意에 대해서는 스스로 自制하고 抑制해 가는 自律性이 작용되어 人間의 모든 生活活動이 自主的으로 영위되어 가는 것이다. 만일 그 行動이 社會·文化傳統의 規範에 違背되거나 犯罪的인 行動이 될 때는 社會的인 指彈을 받거나 法的 制裁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人間은 個體 內部에서 自己自身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조정하며 운전해 가는 自己指導的인 特性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 현명한 判斷에 의하여 自己自身을 잘 조정하는 사람이 理想的인 人格의 所有者라고 할 수 있다.

上述한 人間成長 過程에서 自律性에 관한 몇 가지 類型의 特性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는 自律性의 +(플러스) 特性이다. 이는 人間의 自意行動이 바람직한 行動으로 작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自意行動은 전적으로 自

由스런 立場이 되어 特性의 範圍內에서는 制限을 받지 않고 自由와 自律行動이 행사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學問의 自由, 研究와 自治의 活動의 自由가 어떠한 妨害나 制限을 받지 않고 自由가 保障되는 것이다.

둘째는 自律性의 -(마이너스) 特性이다. 이는 自意行動이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으로 작용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表出된 自意行動이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으로 행사되었기 때문에 父母나 기타 成人으로부터 指示를 받거나 制裁를 받아 自己行動을 수정해 가는 경우인데, 이때는 自意行動은 他意에 의해서 他律的인 立場에서 行動의 變化와 修正이 不可避하게 된다. 이때의 自意行動은 干涉과 制裁를 받게 되는 까닭에 自意가 自由行動으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自意라고 해서 전적으로 自由行動이 허용되지 못하는 緣由가 여기에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 이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을 바람직한 行動으로 변형하고 수정해 가는 自由가 許容됨은 再言을 요하지 않는다.

셋째는 自律性의 統制와 調和의 特性이다. 自意行動이 마이너스 特性으로 행사되었을 때 指示와 統制的인 制裁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때 父母나 기타 關係되는 成人으로부터의 指示나 統制의 內容이 不合理하든지 또는 지나치게 과격되었을 때는 行動에 위축이 오게 되고 意欲의 行動이 消極的으로 되기 쉽다.

네째는 自律的 特性이다. 이는 당초에 작용된 自意가 아직 행사되기 전에 選別하거나 현명한 判斷에 의하여 自己 스스로 마이너스 特性的인 方向을 修正하고 變更하여 特性的으로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人間 個體의 成長 過程에서는 自意에서 他律로 他律에서 自律에로의 過程을 밟아 人格形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導出된 自律性의 諸 特性은 어떤 集團이나 團體, 또는 機關에서의 行動樣式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Ⅲ. 大學教育의 自律性

현재 改革 事業이 推進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이 안고 있는 問題는 너무나 多様하다. 이들 問題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改革을 試圖해 왔으나 여전히 解決해야 할 問題는 山積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모든 問題解決은 自律에 의하여 自主的 立場에서 成就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自律性의 特性들은 곧 大學教育에 相通된다. 大學에서 自律이 요청되는 主體는 첫째는 指導者요, 둘째는 學生이요, 셋째는 大學이라는 機關이요, 넷째는 大學間의 聯合體를 들 수 있다. 이들 네 階層은 자기 슬기롭게 自律해 가면서 大學의 機能인 學問의 研究와 教育과 奉仕가 주어진 大學自由의 理念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方向으로 실천되며, 大學教育의 改革과 運營이 所期의 目的으로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

自律의 特性的인 面에서 볼 때 1960年代까지

만 하여도 大學運營이 混亂과 無秩序와 非理的인 要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어진 自由가 特性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特性的인 要素가 많게 되어 外部로부터의 干涉과 統制가 가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大學의 外的인 간섭과 통제는 程度의 差는 있을지언정 오늘의 大學教育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모든 大學에서는 대학 스스로의 허다한 問題들을 外部에서 干涉과 統制가 오기 전에 自律的으로 自己統制를 해 가며, 그 解決이 成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줄 안다. 근간 알려진 바로는 앞으로의 大學教育의 運營에 있어서 1982년에 발족한 大學教育協議會로 하여금 自律的으로 大學教育의 問題들을 調整 解決해 나가도록 하려는 施策은 매우 鼓舞的이며 大學教育 發展 내지는 大學改革 事業에 큰 成果가 있을 것으로 확실히 마지 않는다. *